



미국 PE재고 급증, 하지만 끝이 아니다

▶ 4월 미국 PE 재고 2개월 연속 급증. 최근 미국 PE 가격 약세의 설명요인임. 단, 아직까지 upstream 에틸렌 대비 downstream인 PE는 진입 덜 됐는데도 이 정도라는 것 인지해야 함. 미국발 화학 공급과잉 현실화 중

북미 PE 재고 2주 연속 급증

US, Canada polyethylene stocks gain for second consecutive month

Polyethylene stocks in the US and Canada saw significant gains for the second consecutive month in April, as production outpaced total sales by almost 401.6 million lb, preliminary data released Friday by the American Chemistry Council showed.

That follows a gain of 421 million lb in March. (중략)
Exports increased to 899.9 million lb, up from almost 838.4 million lb in March. The largest gains were for HDPE exports, which rose 27% to almost 350 million lb. (하략)

자료 : Platts(2018년 5월 11일), SK증권

- 미국 화학협회(ACC, American Chemistry Council)가 약 2주 전에 북미 폴리에틸렌(PE) 재고를 발표했습니다. 2개월 연속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 수치 상으로는 전월대비 약 4.0억 파운드가 증대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3월의 증분인 4.2억 파운드에 맞먹는 수준이라네요
- 4월 수출 역시 9.0억 파운드로 3월의 8.4억 파운드 대비 증대되었는데, 특히 HDPE의 경우에는 전월대비 +27% 증대되었다는 소식입니다

- Cischem에 의하면 5/21 북미 HDPE 가격은 \$1,192.5/t으로서 \$1,302.5/t의 아시아 가격대비 \$100/t 이상 할인되어 있는데, 왜 그랬는지 원인이 조금 이해되기도 합니다

아직 PE 신증설 설비는 완공되지 않은 상황임

Westlake CEO does not expect low ethylene prices to last

Westlake Chemical is enjoying record-low ethylene prices, but company CEO Albert Chao said Thursday he does not expect that price weakness to last. (중략)

"I think the current ethylene price is unreasonably low," Chao said during the company's quarterly earnings call. "One of the reasons is the derivative plants, which were build along with the new capacities, are not operating at a full rates, so they do not absorb the ethylene." (하략)

자료 : Platts(2018년 5월 3일), SK증권

- 그런데 이 뉴스를 5월 초 북미 대표화학업체 Westlake의 CEO인 Albert Chao가 언급한 것과 함께 본다면 그 이상의 의미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 당시 Chao는 사상 최저가를 연일 경신하는 미국 에틸렌 가격에 대해서 "derivative 설비(대표적으로 PE로 이해할 수 있음)가 완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 데이터에 의하면 2017년 이후 에틸렌 크래커가 350만톤/년 신설되었는데, PE는 도합 316만톤/년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 물론 316만톤/년도 많이 증설된 것이지만 에틸렌이 더 많기에 에틸렌 가격은 overcapacity로 급락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2017~19년에 PE 설비가 총 14개 신규 진입인데, 아직 6개 밖에 안 들어왔는데도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발 화학공급과잉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 작성자는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시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건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

